

# '94年 시멘트 決算書

金 英 珉

〈한국양회공업협회 기획부, 대리〉

## 1. 景氣動向

1994年 우리나라 經濟는 輸出과 設備投資의 높은 伸張勢에 힘입어 GNP 成長率이 당초계획보다 다소 높은 8.3%로 推定됐다. 輸出은 円貨 強勢과 先進國의 景氣回復 등 外적 요인에 힘입은 重化學工業의 好調로 堅실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設備投資는 景氣好轉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심리 회복과 최근 2년간의 부진에 대한 상대적인 반등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景氣上昇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設備投資 증가에 따른 자본재수입의 증가로 貿易收支가 국제수지기준으로 23억달러의 赤字로 반전하였으며 아울러 경기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경제안정기조는 경기상승의 영향으로 다소 약화되었다.

消費者物價는 공공요금의 현실화로 서비스가격이 상승한 데다 芻藁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농산물가격이 상승하여 5.8% 증가했다.

한편 不動產景氣도 93年보다 6.7% 증가했고, 95년에도 8.0% 정도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호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94年 建設部門 投資는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주로 社會間接資本施設 擴充등 土木建設部門이 크게 증가했고, 주택건설,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의 증가세는 미미해 전반적으로 建設景氣는 安定勢를 유지한 한 해였다.

이를 部門別로 分析해 보면 住居用 建築部門은 5개 新都市의 分讓終了와 標準建築費의 調整遲延

으로 상반기 建築許可가 지난해보다 33.0% 감소했으나, 하반기에는 감소세가 다소 둔화돼 지난해 이월물량을 포함해도 전체적으로 94년도 建築許可面積은 1.3% 감소에 그쳤다.

商業用, 工業用 建築物은 景氣回復에 따른 사무실, 상가의 수요증가 및 공장신축 증가등으로 8.3% 증가했다.

이에 반해 土木建設은 社會간접자본 투자확대 등에 따라 建設投資가 11.8% 증가, 전반적인 건설경기 호황의 밑거름이 됐다.

결론적으로 '94年 建設景氣는 주택, 토지부문의 전반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호황세를 보였으며 이같은 현상은 95년에도 持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 시멘트需要

建設景氣의 回復에도 불구하고 建築許可面積은 11,622만㎡로 지난해보다 157만㎡ 줄어 1.3% 감소했다.

이는 5개 新都市의 分讓終了와 標準建築費의 引上을 늦추어 상반기가 지난해보다 33.0% 감소했으나, 지난 6월 2일 標準建築費를 6.2% 引上하고 首都圈 宅地共給을 擴大하면서 하반기에는 건축허가면적이 증가되었다. 이로 인하여 당초 주택건설 목표 55만가구보다 다소 늘어난 58만 가구가 건설되어 건설기초자재인 시멘트 需給規模가 擴大되었다.

94年 시멘트 需給은 內需가 사상 처음으로 5

천만톤을 넘어선 5,270만톤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공급면에서도 증설물량의 가동이 生産에 寄與하여 시멘트 생산이 5천만톤을 초과하였으나, 수출물량의 확보와 盛需期 地域的 需給安定을 위한 輸入이 2백여만톤에 달해 需給은 비교적 安定勢를 보였다.

그러나 6월말 鐵道汽管土 罷業으로 철도수송의 存율이 33.0%나 되는 시멘트가 首都圈 등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을 초래하였으나 다행히 파업기간이 단기간에 끝났고, 시멘트수송을 海送으로 轉換하고 시멘트 운반차량을 緊急運送車輛으로 指定하여 高速道路 通行料를 免除하였으며, 군부대의 군용트럭이 동원되는 등 각계의 지원과 노력으로 큰 파동은 피할 수 있었다. 또 8월에는 동양시멘트의 6호키른 원료싸이로가 崩壞되어 생산차질을 가져오는 등 하반기 시멘트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업계들이 稼動率을 꾸준히 維持하고 적절한 輸入으로 需給에 安定을 기하였다.

## 1) 生産

'94년의 크링카生産은 4,956만톤으로 전년 대비 8.7%, 그리고 시멘트生産은 5,163만톤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시멘트생산 5천만톤 초과기록으로 세계 시멘트생산국 중에서 中國, 舊蘇聯, 日本, 美國, 印度에 이어 제6위의 시멘트 생산국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시멘트를 60년대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후 30여년이라는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大記録을 達成하게 된 것은 시멘트업계의 經營革新과 技術革新에 따른 生産性 向上과 경제환경의 고도화로 인하여 생겨난 豊富한 內需 建設市場에 起因한다.

이는 시멘트업계 내부적으로 과감한 投資와 계속적인 增設을 통한 업체자체의 끊임없는 변신노력과 최신생산공법인 NSP시설의 조기도입, 낙후시설의 개조 및 성숙된 기술의 종합적인 결과와 외부적인 국내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르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대규모 주택건설 등으로 인한 建設景氣 好況으로 시멘트수요가 증가되어 확고한 內需市場의 確保가 可能했기에 시멘트 생산이 5천만톤을 상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시멘트生産을 分期別로 살펴 보면 1/4분기 7.1%, 2/4분기 7.5%, 3/4분기 11.1%, 4/4분기 14.1%로 매분기 7.0% 이상의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이는 現代, 星信, 洪城의 증설키른의 가동상태가 일찍 정상궤도에 이르렀고, 수요증대에 따른 공급부족에 차질이 없도록 업계가 생산시설 가동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業體別 生産實績을 보면 現代와 星信이 각각 전년 대비 32.4%, 25.1%의 높은 증가를 나타냈고, 漢擎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1.6%, 5.5% 증가했다. 現代와 星信은 3월에 가동한 寧越2號와 丹陽5號 키른의 본격생산으로 증가하였으나, 漢擎는 크링카수출을 위한 물량확보로 상대적으로 시멘트 생산에 차질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 2) 內需

建設景氣 同行指標로서 시멘트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建設投資가 주거용 회복세와 비주거용 및 토목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 전년 대비 7.5% 증가, 건축경기 활성화를 보여 시멘트 내수는 매일 급격히 증가하여 총내수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한 5,267만톤에 달하였다. 특히 11월의 수요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이후 불량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동절기대비 마무리공사 등으로 전년 대비 25.3%나 증가한 월중 최고인 526만톤을 기록하였다.

이를 分期別로 살펴보면 1/4분기 7.7%, 2/4분기 12.2%, 3/4분기 8.8%, 4/4분기 20.9%로 매분기 증가하였고, 4/4분기는 10월과 11월이 500만톤 이상의 내수출하를 보여 95년도에도 내수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1人當 시멘트消費量은 1,170kg에 달해 臺灣등 都市國家들을 除外하고는 世界最高를 나타냈다.

### (1) 季節的 出荷實績

시멘트는 製品의 特性上 需要的 季節性이 뚜렷한 품목이나 근래에 이르러 겨울철 기온상승과 건설공법의 발달로 인하여 동절기에도 공사가 진행되어 점차 성·비수기 구분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시멘트의 月別 消費推移를 보면 건설업 비수기

인 1, 2월과 酷暑와 雨期인 7월에만 월평균 내수 출하 439만톤을 밀도는 실적을 보였고, 나머지달은 이를 상회하고 있어 성·비수기의 구분은 되고 있으나, 1, 2월이 월평균 내수 출하실적의 60.0%인 250만톤을 기록하였을 뿐, 7월은 96.0%에 달해 그 차이가 차츰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중 500만톤 이상 출하한 달이 4, 6, 10, 11월 네달이나 되고 月平均 出荷보다 16.7%나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半期別 出荷構成比는 상반기 46.6%, 하반기 53.4%로 각각 2,453만톤, 2,814만톤으로 하반기가 36만톤 많은 출하를 기록, 시멘트 최저소비기간인 冬節期 1, 2월이 상반기에 편재된 것을 감안한다면 정상적으로 하반기에 다소 需要偏重 現況을 보였다.

분기별로는 1/4분기 17.9%, 2/4분기 28.7%, 3/4분기 25.1%, 4/4분기 28.3%를 점유하여 2/4분기가 피크를 기록하였다.

## (2) 需要部門別 및 品種別 出荷實績

內需出荷를 需要部門別로 보면 民需 94.6%, 官需 5.4%로 각각 4,982만톤, 285만톤으로 93년의 民需 93.6%, 官需 6.4%였음을 고려할 때 民需는 매년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요를 주도하는 반면 官需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94년에도 이러한 현상을 계속되었고, 물량면에서도 民需가 615만톤 증가한 것에 비하여 官需는 16만톤이 감소한 실적에 그쳤다. 이는 점차 공공공사 자재수급을 건설회사에서 조달하여 시공하는 형태로 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品種別 出荷實績을 보면 벌크시멘트의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어 수요패턴이 벌크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日本의 경우 '93年度 벌크화율이 92.0%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벌크화율의 전환이 계속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벌크출하는 수입시멘트를 포함하여 5,267만톤으로 벌크화율은 79.8%를 차지하여 전년의 75.6%보다 4.2% 포인트 높아졌으며, 물량으로는 672만톤으로 19.0%가 증가하였다. 월별로 살펴보면 非需期인 1, 2월은 비축용 포장시멘트의 저장으로 각각 평균보다 낮은 72.2%, 75.9%를 나타냈다.

이러한 벌크화율 증가세는 시멘트 이용면에서 대량소비, 기계화 및 레미콘 사용의 일반화와 연결될 수 있는데, 94년의 레미콘 총생산량은 1억

659㎥로 수도권의 경우 4,106만㎥를 생산,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이중 民需는 3,418㎥로 전년보다 9.1% 늘었으며 官需는 688만㎥로 3.2% 감소했다. 이와 같이 레미콘 사용이 일반화되는 것은 건설공사가 건설인력의 부족과 현장타설공사가 레미콘으로 급격히 전환되는데 기인하며 균질의 콘크리트를 대량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데 있다. 또한 벌크화율의 향상은 輸送効率의 增大, 保管管理의 容易, 流通의 單純化, 荷役費用 및 包裝費用의 切感과 消費者에 대한 서비스 강화등 이점이 많아 벌크화율의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다.

시멘트 내수출하를 地域別로 보면 首都圈이 전체물량의 38.7%를 점유하여 最大 消費處임을 알 수 있고 釜山, 慶南地域이 15.6%를 차지하였으며 江原, 忠南北, 全南北, 慶北, 濟州地域이 각각 4.5%, 13.3%, 13.1%, 13.4%, 1.3%로 大都市와 京釜線을 軸으로한 지역으로 수요가 많았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西海岸 開發이 본격화되면서 忠南과 全南地域으로의 내수출하가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이 지역의 인프라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在 庫

94年末현재, 공장과 소비지의 크링카·시멘트를 모두 합한 總在庫는 242만톤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했다. 이중 공장재고는 전체재고의 90.6%를 차지한 220만톤으로 전년보다 12.3% 증가하였고, 소비지재고는 전체재고의 9.4%를 점유한 23만톤으로 전년보다 25.5% 감소하였다. 이는 마감공사로 인한 포장수요가 많아 소비지 저장시설인 驛頭와 荷置場의 출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工場在庫중 본공장재고는 162만톤으로 전년보다 15.8%가 늘었고 분공장재고는 58만톤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盛需期를 對備한 在庫確保로 2월말이 350만톤으로 최고를 기록하였고, 설비증설로 인한 생산증대와 공급불량 확보를 위해 가동율을 높여 매월 200만톤 이상의 재고를 꾸준히 확보하였다.

## 4) 輸出入

94년의 시멘트 輸出入을 보면 原油價 安定, 円高現狀, 世界經濟의 전반적인 回復과 더불어 국내경기가 회복되어 기업의 設備投資가 增加하였

고, 공공무문의 社會間接資本 投資擴大, 민간부문의 住宅需要 增加로 건설경기가 활황을 보여 시멘트 내수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輸出物量 確保에 어려움을 겪어 輸出은 전년 수준에 머물렀으며, 收入은 대폭 증대된 현상을 나타냈다.

크링카를 포함한 社別 輸出實績은 東洋 86만5천톤, 雙龍 163만4천톤, 韓一 20만7천톤, 現代 35만6천톤, 亞細亞 2만5천톤, 星信 28만9천톤, 漢拏 93만2천톤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沿岸社는 漢拏만 증가하였고, 內陸社인 韓一, 現代, 亞細亞, 星信은 증설로 인한 輸出物量 確保로 연안사와 활발한 交換輸出을 하여 큰 폭의 신장율을 기록하였다.

交換輸出實績을 보면 韓一, 亞細亞, 星信의 크링카 전량과 現代의 크링카 33만6천톤중 19만4천톤이 雙龍을 통해 輸出되었고, 現代의 크링카 나머지 14만2천톤은 漢拏에 의해 輸出되었다. 전체 수출물량중 교환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4%를 점유하였는데 이는 내륙사가 연안사를 통해 수출함으로써 가동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沿岸社의 내륙시장에 대한 시멘트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시멘트需給에 크게 寄與하였다.

品種別 輸出實績을 보면 크링카가 전체 수출량의 74.5%인 321만1천톤이고, 시멘트는 109만7천톤으로 크링카의 수출비중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업계의 최근 新增設로 인한 크링카 생산이 증가되었고, 우리의 主要시멘트輸出市場인 東南亞國家들의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投資가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따른 크링카 粉碎施設 增設로 크링카需要가 擴大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地域別로는 94年 總輸出國은 14개국으로 주로 東南亞細亞와 中東地域에 偏重되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이 90:10으로 나타나 증량물인 시멘트의 특성상 비교적 근거리인 東南亞細亞로의 輸出이 높게 나타났다.

國別 輸出實績은 단일 국가로는 日本이 14.3%로 최고를 기록했으나 전년도 19.6%보다 5.3%포인트 감소되어 과거 日本 편중에서 벗어나 輸出線이 多角化되고 있어 긍정적면도 있으나, 日本은 지역적으로 가까우며 대규모의 건설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日本에 대한 進出은 對日貿易逆差 改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시멘트 수급안정을 위하여 戰略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므로 日本의 輸出市場 管理에 업계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

으며, 東南亞地域은 경제발전에 비례하는 시멘트 수요 증가로 분쇄시설을 늘리고 있어 시멘트 보다는 크링카輸出이 계속 維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94年 크링카수출량중 東南亞地域으로 95.6%가 輸出되었고, 그중 싱가포르 21.2%인 65만2천톤이 수출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면 시멘트輸入을 보면 1/4분기 21만7천톤, 2/4분기 71만8천톤, 3/4분기 70만2천톤, 4/4분기 68만1천톤으로 모두 231만8천톤으로 전년 대비 107.1% 증가하였고, 물량으로도 120만톤이나 늘었는데 이는 수출과 연계한 수입, 鐵道 汽管土 罷業과 성수기 때 地域의 需給不均衡을 解消하기 위한 需給調節用으로 수입되었는데, 이 중 日本産이 95.2%인 220만7천톤이었고, 中國産은 11만1천톤으로 이 또한 中國一 小野田시멘트 合作會社 제품으로 수입량 모두 日本産으로 볼 수 있다.

## 5) 輸 送

94年 輸送實績은 鐵道 1,849만2천톤, 船舶이 1,730만8천톤, 陸送 2,024만7천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0.2%, 15.8%, 18.6% 伸張하였으며 전체로는 11.1% 증가한 호실적을 보여 94年度の 堅實한 建設景氣와 이에 수반된 시멘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輸送活動이 비교적 活潑했음을 볼 수 있다.

手段別 輸送實績 分擔比를 보면 鐵道 33.0%, 船舶 30.9%, 陸送 36.1%로 국내 시멘트 需要가 增大되면서 他 輸送手段에 비해 適期 確保가 容易한 편인 트럭에 의한 陸路輸送이 상대적인 物流費 負擔에도 불구하고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鐵道와 陸送을 통한 輸送量도 전체의 69.1%에 달하고 있으나, 갈수록 交通滯症 및 貨物積滯가 심해지면서 海上을 통한 輸送의 必要性을 切感하여 항만에 신속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한 전용부두와 싸이로를 仁川, 馬山港 등 7개 항만에 5개선식 규모의 간이 계류시설비를 건설중인 것을 비롯, 부산 감천항, 仁川 南港, 馬山港 등에도 轉用埠頭를 建設中에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물동량 처리와 함께 지역별 消費地 需給圓滑化를 기하기 위해 永宗島 등 沿岸地域과 坡州, 초성리를 비롯한 首都圈 北部地域 등 전국적으로 시멘트 싸이로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私有貨車 등 輸送手段 擴充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